

태풍 '나리'로 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의 심리지원 분석

강영훈*

< 차례 >

- I. 서론
- II. 이론적 검토
- III. 분석모형의 설정
- IV. 재난관리단계 실증 분석
- V. 결론

국문요약

태풍 제11호 '나리'(NARI)는 2007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 내습하면서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재난의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질적·경제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재난심리 분야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재난으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와 함께 우울, 정신평열 증세, 자살 충동 등 심리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면 개인 및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도,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재난 심리지원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난관리 활동이 모두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리지원정책을 중점으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본 연구과제는 행정대학원 발전기금으로 수행되었음"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AHP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사례로는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동문재래시장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는 집중호우 및 침수로 인해 불안, 충격·분노·기억장애, 스트레스와 갈등의 심리적인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재난 직후 나타남으로써 재난 초기의 심리지원이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재난 이후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불안, 스트레스와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편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재난심리지원 정책 중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법적·제도적 정비(.386), 교육 및 홍보 강화(.275), 전문인력 확보·양성(.223), 심리지원센터 지정·운영(.116)으로 나타나 재난의 피해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민간 자원봉사자 등 재난 시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상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재난관리, 재난심리, 재난심리지원, 우선순위, AHP

I. 서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등 거의 자연재난은 물론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인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김응락·이현담, 2008).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의 항공기 테러,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 2005년 8월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대지

진, 그리고 최근(2009년 4월)에 발생한 이탈리아 라퀼라시의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극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해 채리호 침몰(1993), 삼풍백화점 붕괴(1995), 태풍루사(2002), 대구지하철사고(2003), 태풍매미(2003), 대구 서문시장 화재(2005),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2007), 경기도 의왕시 공장화재(2007), 태안 기름 유출(2007), 송해문 화재(2008) 등 규모가 큰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¹⁾. 이렇듯 재난환경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고, 기존에는 자연재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최근 인위적인 재난이 급격하고 있다.

최근 재난관리에 있어서 재난 규모별,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조직, 예방에서 복구에 이르는 재난관리단계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이 설치된 것을 계기로 재난관리의 중점이 재난발생 이후 관리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의 사전홍보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재난의 자기 책임과 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의 노력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며, 여기에서 인간의 행동방식이나 인지, 재난현장에서의 사람의 반응연구, 학습, 사후의 심리적 지지 및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난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물질적·경제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심리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재난심리 분야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박성우, 2010). 즉,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지, 지속적인지 등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 재난으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와 함께 우울, 정신평열 증세, 자살 충동 등 심리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장기

1)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go.kr>)에서는 대형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화되면 개인 및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

재난 경험이 충격과 우울 및 불안을 포함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이루어지면 재난 이후 중대한 자기 발전(외상후 성장 : Post Traumatic Growth)의 계기가 되고 재난 경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소방방재청, 2008). 특히 자신의 문제를 재확인하고 건설적인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재구성과 재인식의 단계가 재난 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으면 지속되는 심리적 문제가 크게 증가한다(Lee et., 2006)는 점을 생각하면 가능한 빨리 재난 후 심리적 상태를 사정하고 이에 대한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인해 유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이 1,878건에 97,462백만원, 사유시설이 33,284백만원, 전체 피해액이 130,746백만원이었다. 하천유실이 42개소 365건으로 재산피해가 가장 컸으며, 사망자 13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를 내는 등 제주특별자치 재해사상 최고의 피해를 입혔다(제주특별자치도, 2007). 또한 태풍 나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방과 완화단계, 준비단계, 응급 대응단계, 복구단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강영훈, 2008), 특히 사후 관리 중 복구에서단계에서 심리지원 활동은 거의 없었다. 당시의 심리지원 활동은 중앙의 소방방재청 소속 재난관리지원팀²⁾이 파견되어 제주시 피해가구, 독거노인 등 26세대 심리안정 활동

2) 2007년 재난심리활동에 참여하였던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현미열 교수와의 면담 결과 당시의 재난관리지원팀은 시범사업으로 조직되었다. 현재 재난피해자의 심리지원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정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http://www.dmhs.go.kr/>).

을 전개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태풍 '나리'이후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도,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 심리지원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난관리단계의 전 단계와 각 단계별 활동이 모두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리지원 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검토

1. 재난관리의 의미

재난의 개념은 다양하여 국가와 개인의 성장환경에 따라 상이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1)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시민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 2) 갑자기 발생하는 것, 정확히 예지, 예측이 곤란한 것, 3) 비일상적이어서 발생빈도가 적고 평소 체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생활, 생산활동 중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운 것, 4) 피해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응이 곤란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재난은 그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중요도 구분은 중심적 재난, 주변적 재난 등으로 구분할 때 각국에서 다루고 있고 재난의 중요도는 <표 1>과 같다(전병호, 2007).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연재난을 가장 중요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전쟁도 재난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세계주요 국가의 재난의 중요도

	자연재난	인적재난	전쟁
미국	◎	◎	○
영국	○	◎	△
독일	○	◎	○
스위스	○	○	○
이탈리아	◎	○	x
뉴질랜드	◎	○	△
그리스	◎	x	x
일본	◎	△	x
멕시코	◎	△	x

◎중심적 재난 ○주요재난 △주변적 재난 x재난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 전병호(2007), 재해관리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제주의 과제

우리나라도 헌법 제34조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는 재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재난의 종류를 자연재난, 인위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한다. 각각 재난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열수, 2004). 자연재난은 인위적인 노력만으로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인위재난은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안전관리,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근절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재난도 노사화합과 철저한 보건 관리 및 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근절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재난통제에 비해 좀 더 넓은 접근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적 사건의 위험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재난관리는 예방완화단계, 준비계획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구분되며 이러한 4단계의 국면에 걸쳐 순차적이고 총체적 관리를 위해 통합적 매카니즘을 구성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재난관리의 단계별 매카니즘을 보면 <표 2>와 같다(제주도 소방재난 관리본부, 2004).

<표 2> 단계별 재난관리 정의 및 수단

단계	정의	일반적 수단
예방 (완화)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성 정도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모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규, 재난보험, 소송(기소) - 토지사용관리 - 감시감독/조사/검사/민원 - 일반인 예방안전교육, 과학적 연구 - 위험지도 제작/경방카드 작성 - 안전법규 및 조례
준비 (대비)	비상 시 효과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사전 준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통신시스템 구축 및 관리 - 대응조직(기구) 관리/직원교육훈련 - 긴급대응계획의 수립 및 연습 - 재난방송 및 공공정보자료 - 대응시스템의 가동연습/매뉴얼 작성 - 재난위험성 분석 - 지역간 상호응원협정체결 - 지원동원관리체계 구축
대응	재난발생 직전과 직후 또는 재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취해지는 인명구조, 재산손실의 경감, 긴급복구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 - 시민들에 대한 비상대비 활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긴급지시 - 응급의료 지원활동 전개 - 긴급대응계획의 가동(활성화) - 대책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공식적인 대주민 비상경고 - 피해주민 수용 및 구조 - 탐색 및 구조 - 경보시스템의 가동

복구	일반적으로 단기복구와 중장기복구활동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단기복구는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생활지원 활동을 말하며, 중장기복구는 정상적인 생활 태로의 복귀 및 보다 향상된 상태로의 복귀를 위해 취해지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주민 및 활동요원 심리상담 - 피해평가/잔해물제거 - 보험금 지급 - 대부 및 보조금 지원 - 재난으로 인한 실직자 지원 - 유익한 재난관련 공공정보 제공 - 대응계획 평가 및 수정 배포
----	--	--

출처: 제주도 소방재난관리본부.(2004). 재난관리 단계별 업무 처리 내역

재난관리단계별 심리관리를 살펴보면 먼저 예방 및 준비 단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한 홍보나 교육 및 훈련의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영역의 대표자들이 모여 각 직능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내용을 제안하고 이를 분석하여 통합적으로, 그리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대비단계에서는 모의 재난 상황을 구성하고 모의 훈련을 한다. 훈련을 하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난관리의 전체 목표에 따라 어느 직능간 연결점에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응단계에서는 인명구조, 비상의료지원, 긴급피난지 운영, 일시 격리 수용 등의 구체적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정서적, 정신적 지지를 수행한다. 따라서 각 전문가들은 그들의 핵심 활동을 하면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배려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구단계에서는 재난 발생 이전의 상태의 회복이나 개선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따라야 하는 단계로 여기에는 정신건강요구 및 스트레스 측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선별, 치료 의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소방방재청, 2008).

2. 재난 피해자

재난 피해자란 “재난의 영향을 받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벗어나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산, 간접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소방방재청,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 피해자를 각종 재난 위기로부터 생명, 재산, 건강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재은, 2007). 보다 구체적으로 그 정도에 따라 생각하자면 1차 피해자는 외상사건에 최대노출된 사람을 말할 수 있고 2차 피해자는 1차 피해자와 가까운 친인척을 들 수 있다. 3차 피해자는 재난 상황에서 구조 및 복구에 관련하는 사람들, 의료, 간호, 정신보건, 적십자, 성직자, 응급요원, 소방관, 경찰관 등이 있다. 그리고 4차 피해자는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즉 리포터나 정부 관계자들을 말할 수 있고, 5차 피해자는 재난관련 매스미디어의 보고를 접한 후 심리적 스트레스와 혼란을 경험하는 불특정 다수인 개개인이라 하겠다.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하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재난 피해자는 재난으로 인해 일상적 생활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6차 피해자는 이전에 재난의 경험을 한 사람들(재난 피해자, 재난구급요원, 재난 관련 연구자, 재난 관련 직종종사자 등)을 말한다. 이미 경험한 재난의 충격이 다시 떠오르면서 충격을 받게 된다(소방방재청, 2008).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직후 충격이나 스트레스 반응에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보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³⁾로 진단을 받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

3)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환자에서 보이는 중요한 세 가지 임상양상은 첫째 악몽에 시달리고 기억을 반추하는 등 위협적이었던 외상적 사건을 재경험(reexperience)하는 것, 둘째 그러한 외상을 상기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려하거나 그러한 상기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삶의 질이 낮으며 손상받기 쉬운 집단(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인 취약계층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반인보다 더 특별한 요구를 가진다(김찬형, 2005).

3. 외국의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제도

1) 미국의 재난정신보건관리 체계

미국은 대규모화된 지진과 허리케인 등 많은 재난발생과 전쟁, 대량학살, 첨단 기술적 재난에 대한 혁신적 반응에 기인하여 1989년 이후부터 재난정신보건사업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재난정신보건관리시스템의 중심적인 조직 축은 재난의 공적재난 구호조직인 연방정부의 재난관리청(FEMA)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의 재난관리과, 미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다음으로 최대 민간조직인 적십자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2개 분야인 비상지원기능(Emergency Support Function) 중의 하나인 미국 ESF#8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건 분야로 1991년도 공식적으로 정신보건서비스가 추가되어 상설로 정신보건서비스와 위기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외 약 82,000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독립적으로 정신보건사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은 연방 응급관리청, 보건복지부의 '약물남용·정신보건사업국' 및 다른 센터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위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

에 대한 반응을 마비시키려하는 회피와 감정적 무감각(emotional numbness), 셋째 자율신경계의 과잉 각성상태(hyperarousal)이다. 이러한 상태와 더불어 우울이나 불안, 일상생활에 대한 집중곤란, 흥미상실, 대인관계에서 무관심하고 멍청한 태도를 보이면서 짜증, 놀람, 수면장애 등을 보인다.

건복지부, 2006: 32-33).

대형 재난이 발생한 후 대통령에 의해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된 경우 포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내에 여러 부서가 협력하는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재난관리의 기본정신은 피해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도록 돕고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CCP(Crisis Counseling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 : 위기상담 프로그램)는 FEMA 주관하에 부처간 공동역할을 수행하는 연방정부의 보조지원 프로그램으로 대통령 선언의 재난에 적용된다. CCP 운영자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훈련시킬 담당자를 지정하고, 분야별 자문위원을 지정한다. 재정 감독, 행정지원, 자료 기록 담당자는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찰 및 감독을 실행하고 프로그램 예산 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소방방재청, 2008).

2) 일본의 재난정신보건관리

일본은 자조(自助, 재난으로부터 주민과 기업이 스스로 지켜나감), 공조(共助,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함), 공조(公租, 중앙과 지방의 행정에 의한 시책)의 역할 분담에 의한 주민, 기업, 지역사회, NGO 및 행정부문 각각이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리지원분야에서 후생노동성에서는 2003년 1월 「재난시 지역정신보건 의료 활동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재난 시 지역정신보건 의료활동의 필요성, 재난시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 재난시의 지역정신보건의료 활동의 구체적 전개, 평상시 해야할 일, 재난 직후 지켜 봐야 할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생활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센터는 비상시에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현(縣) 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시에는 해당 지역별로 피해자의 인원을 파악하여 충분한 개수의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복지부, 2006: 33-35).

3) 우리나라의 재난정신보건관리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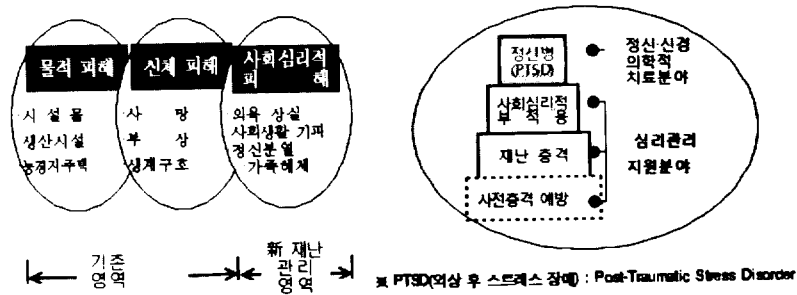
기존 물질보상 위주의 재난 사후관리시스템은 재난피해자의 심각한 심리충격 치유를 도외시 하여 병리현상 발생 및 사회간접비용 증가로 나타남에 따라 시설피해 복구지원과 이재민 긴급구호 차원을 넘어 재난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 치유를 위한 심리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였다. 2006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07년 태풍 ‘나리’ 피해자 대상 시범지원(서귀포, 94명), 2008년 태안 유류유출 피해자 대상 시범지원(태안군, 287명), 경북 봉화군 집중호우 피해자 대상 시범지원(87명) 등을 거쳐 2008년 12월 소방방재청의 재난심리지원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먼저 지원대상자로는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 재산상의 손실이 크거나 직업 전환이 불가피한 피해자로서, 기초 조사에서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도가 심리학적, 정신의학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심리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

4) 소방방재청(2010), 2010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계획,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정보센터(<http://www.dmhs.go.kr/>) 참조.

상으로 하고 특히, 재난 피해자 중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업무영역은 심리적 피해 완화까지 포함하되, 정신·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기존의 보건의료 체계에 따라 지원하므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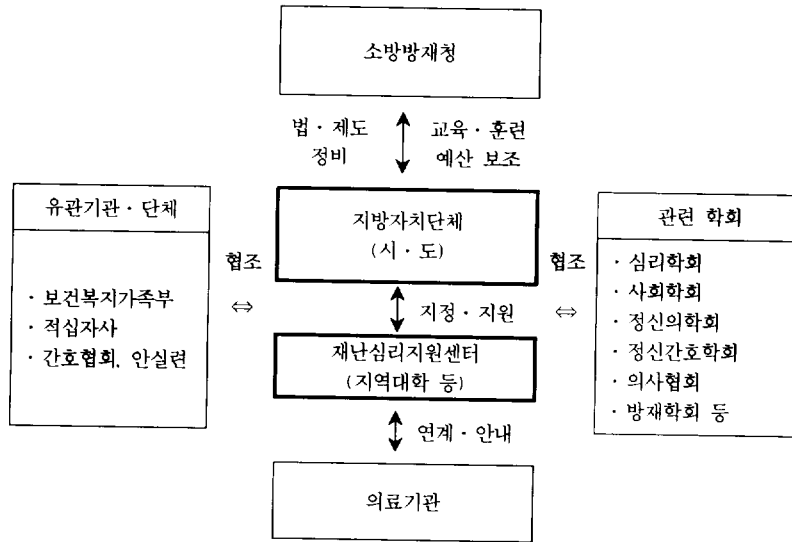
(그림 1) 재난 피해의 범위 및 업무영역



출처 : 소방방재청.(2010). 2010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계획. p.8.

심리지원사업의 추진은 먼저 소방방재청은 재난심리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Pool 구성 지원, 재난피해자 기초조사·연구 및 표준 상담·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활동에 필요한 예산보조 및 관계기관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재난심리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기타 행정지원의 업무를 재난심리지원센터(지역대학, 의료기관 등)는 실질적 지역 재난심리 활동 총괄지원(인력 Pool 구성, 지원 활동 등), 해당 지역 재난피해자 심리상황 등 기초조사 실시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2) 우리나라의 심리지원사업 추진체계



출처 : 소방방재청.(2010). 2010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계획, p.9.

4) 시사점

미국·일본의 재난심리지원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먼저 심리적 지지와 사회적인 지지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개념 정립,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지원 정책,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지휘체계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지원 대비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 재난이 많은 주민의 정신건강에 미친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심리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중·장기적인 충격을 파악하고, 재난피해자 및 재난피

해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Ⅲ. 분석모형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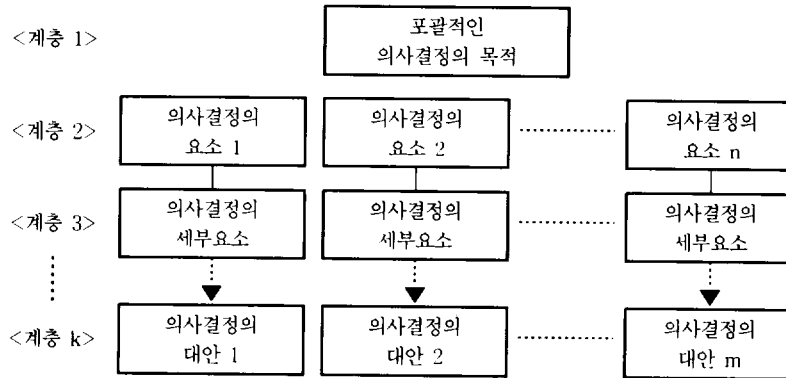
1. 방법론 고찰 및 계층분석기법(AHP)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정책 등의 우선순위 결정과 같은 가중치부여를 통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부여에 대해 높은 신뢰도와 유용성을 갖고 있는 계층분석기법(AHP)을 선정하였다(조근태 외, 2005).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은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 또는 네트워크 구조로 표현하고, 이 구조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근거한 대안들의 가중치 또는 우선순위를 구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이 기법은 의사결정자의 판단시 상위계층의 한 요소의 관점에서 직계 하위계층의 두 요소(또는 기준)들 사이의 쌍별비교를 통해서 요소들의 중요도(또는 가중치)를 도출해 낸다. 두 개의 요소들 사이의 쌍별비교를 통해 각 요소들의 중요도를 구하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판단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AHP는 의사결정자의 오랜 경험이나 직관 등을 평가의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될 수 없는 정성적인 요소들도 쉽게 고려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자가 한 계층의 요소들에 대해 여러 번에 걸친 쌍별비교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일관성을 인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AHP는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사결정기법들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박배진·김영민, 1999).

의사결정체계는 (그림 3)과 같은 표준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AHP의 표준 계층



자료 : 조근태 외.(2005).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p.5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HP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결정 계층 설정,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로 판단자료 수집, 고유치 방법(eigenvalue method)으로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⁵⁾ 추정,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 종합화의 네 단계의 작업이 수행된다.

2. 분석모형

재난심리지원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측정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평가지표는 재난관리 및 재난심리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작성하였으며, 당시 재난현장에서 심리지원 활동을 했던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평

5) 가중치(weight) : 우선순위벡터(priority vector)를 일컫는 말로서, 이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가 된다.

가지표를 설정하였다.

계층 1의 가장 최상위 평가목표는 재난심리지원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으로 하여 계층 2의 평가지표를 법적·제도적 정비, 전문인력 확보·양성, 교육 및 홍보 강화, 심리지원센터 지정·운영으로 구성하였다.

<표 3> 재난심리지원 정책의 평가지표

세부정책	주요내용
법적·제도적 정비	재난 피해자 지원 및 실효 가능한 법률 정비 등 근거 마련
전문인력 확보·양성	재난심리 및 상담·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자로서 심리학자, 정신과, 간호학과 교수,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 요원, 심리상담 전문가(대학, 대학원 석·박사), 재난피해 경험자 등
교육 및 홍보 강화	소방공무원 및 일반공무원·민간봉사자, 일반 국민, 재난피해자 등 재난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교육
심리지원센터 지정·운영	재난심리센터 지정 및 운영, 재난심리전문가의 네트워크 강화, 전문인력관리,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계획 수립, 장기적인 연구 및 심리지원시스템 구축

IV. 재난관리단계 실증 분석

1. 분석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과 우울 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실태와 심리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2007년 9월 태풍 나리 당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문 재래시장 상인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 내습 당시 하루 동안

제주시 지역에 내린 비가 제주기상청 관측사상 가장 많은 420mm를 기록할 정도의 집중호우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각종 언론이나 토론 및 논의에 있어서 재난대응 체제, 재해복구 시스템,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재난피해자의 심리적인 접근은 일부에서만 진행되었다⁶⁾. 특히 동문재래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진열했던 추석 물건의 손실과 진흙과 쓰레기로 뒤덮힌 참혹한 현장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은 더 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심리에 대한 실태파악, 심리적 안정 및 심리적 지원에 대한 활동은 부족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과 전문가조사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태풍 '나리'당시 피해를 입은 동문재래시장의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난 후 3년이 지난 현재의 심리적 변화 및 지원 정책들에 대한 질문과 정책우선순위 측정을 위한 질문을 병행하였고, 2010년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졌다. 분석은 32명의 응답을 받아 이 중 응답의 누락 등 불확실한 것을 제외한 22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AHP기법을 이용하였다.

2) 분석의 신뢰성

AHP기법의 신뢰성 분석은 각 평가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6) 제주특별자치도의 심리안정 활동으로는 제주시 지역의 피해가구, 독거노인 등 26세대, 서귀포시 지역의 94명에 대한 시범지원을 실시하였다.

평가하는 경우 판단상의 오차를 측정하는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 CR)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관성비율(CR)이 10%(0.1)보다 작을 때 일관성이 있다고 규정한다(조근태 외, 2000).

본 조사의 자료 입력시 일관성비율(CR)은 10%(0.1)미만인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체 일관성 비율은 0.01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3. 분석의 결과

1)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및 심리지원 실태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9명(28.1%), 여자 23명(71.9%)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9세 이하 1명(3.10%), 30대 3명(9.4%), 40대 7명(21.9%), 50대 10명(31.3%), 60세 이상은 11명(34.4%), 소득별로는 1,000만원 미만과 1,000만원~1,500만원이 7명(21.9%), 1,500만원 ~ 2,000만원이 5명(15.6%), 2,000만원 ~ 2,500만원이 8명(25.0%), 2,500만원 ~ 3,000만원이 1명(3.1%), 3,000만원 이상 4명(12.5%)로 나타났다.

<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비율(%)	계
성별	남자	9	28.1	32(100%)
	여자	23	71.9	
연령	29세 이하	1	3.1	32(100%)
	30세~39세	3	9.4	
	40세~49세	7	21.9	
	50세~59세	10	31.3	
	60세 이상	11	34.4	

소득	1,000만원 미만	7	21.9	32(100%)
	1,000만원 ~ 1,500만원	7	21.9	
	1,500만원 ~ 2,000만원	5	15.6	
	2,000만원 ~ 2,500만원	8	25.0	
	2,500만원 ~ 3,000만원	1	3.1	
	3,000만원 이상	4	12.5	

재난피해자들의 2007년 당시 집중호우 및 침수로 인한 심리적 상태로 충격·분노·기억장애, 불안, 스트레스와 갈등을 심하게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재난 상황에 대한 면담 과정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흥분한 응답자를 볼 때 충격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구분	충격/분노 /기억장애		우울/자살사고		불안		스트레스와 갈등			
평균	4.16		2.97		4.19		4.16			
표준편차	.987		1.470		.946		1.110			
	전혀 심하지 않았다		심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약간 심했다		아주 심했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충격/분노/기억장애	-	-	3	9.4	4	12.5	10	31.3	15	46.9
우울/자살사고	7	21.9	6	18.8	7	21.9	5	15.6	7	21.9
불안	-	-	2	6.5	5	16.1	9	29.0	15	48.4
스트레스와 갈등	1	3.1	2	6.3	5	15.6	7	21.9	17	53.1

재난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감정 등의 변화로는 놀람(50.0%)과 자연 현상에 민감(31.3%)해졌고, 변화의 시기는 대부분 사고 직후(90.3%)로 나타남으로써 무엇보다 초동 대응 및 초기 심리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 파악과 심리지원

인력의 조기 투입을 비롯하여 심리정보 제공 등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표 5〉 심리적 변화 및 변화 시기

변화	전혀 심하지 않았다		변화시기	심하지 않았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기억력 감퇴	1	3.1	사고 직후	28	90.3
신경질적인 반응	3	9.4			
놀람	16	50.0	사고 3개월 후	2	6.5
말이 없어짐	1	3.1			
자연현상에 민감	10	31.3	기타	1	3.2
기타	1	3.1			
합계	32	100.0	합계	31	100.0

'나리' 이후 심리적 상태는 충격·분노·기억장애와 우울·자살사고는 해소된 편이었지만 불안과 스트레스 및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편으로 나타나, 재난이 경과한 후 많은 시간이 지나도 심리적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심리적 상태 변화 정도

구분	충격/분노/기억장애		우울/자살사고		불안		스트레스와 갈등			
평균	3.25		3.90		2.75		2.88			
표준편차	1.320		1.221		1.344		1.338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해소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약간 해소되었다		완전히 해소되었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충격/분노/기억장애	4	12.5	7	21.9	3	9.4	13	40.6	5	15.6
우울/자살사고	1	3.2	4	12.9	6	19.4	6	19.4	14	45.2
불안	6	18.8	11	34.4	4	12.5	7	21.9	4	12.5
스트레스와 갈등	6	18.8	7	21.9	9	28.1	5	15.6	5	15.6

제주특별자치도의 심리지원에 있어서는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 하고 있었다. 당시 재난심리분야는 정확한 시스템이 없이는 논의 또는 시범으로 일부 심리지원활동이 있었지만 재난이 광범위한 것에 비해 많은 재난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제주특별자치도의 심리상담 및 지원 여부

변화	전혀 심하지 않았다		평균	표준편차
	빈도(명)	비율(%)		
대체로 잘 이루어졌다	5	15.6	4.00	1.136
모르겠다	5	15.6		
지원이 없었다	7	21.9		
전혀 지원이 없었다	15	46.9		
합계	32	100.0		

2) AHP분석 결과

AHP분석을 통한 재난심리지원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재난심리지원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법적·제도적 정비(.386), 교육 및 홍보 강화(.275), 전문인력 확보·양성(.223), 심리지원센터 지정·운영(.116)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재난피해자들은 재난 피해자 지원 및 실효 가능한 법률 정비 등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고 지원에 대한 구체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재난심리정책

평가영역	법적·제도적 정비	전문인력 확보·양성	교육 및 홍보 강화	심리지원센터 지정 운영
상대적 중요도	.386	.223	.275	.116
우선순위	1순위	3순위	2순위	4순위

V. 결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피해는 물적·인적으로 피해의 규모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재난관리에 있어서 재난 규모별,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조직, 예방에서 복구에 이르는 재난관리단계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이 많이 바뀌어지고는 있고, 인간의 행동방식이나 인지, 재난현장에서의 사람의 반응연구, 학습, 사후의 심리적 지지 및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난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물질적·경제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심리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재난심리 분야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미국과 일본은 심리적 지지와 사회적인 지지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시범사업 등을 거쳐 2008년 12월 소방방재청의 재난심리지원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의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연구로서 재난 후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 및 변화, 재난심리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재난심리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측정하였다. 평가지표로 법적·제도적 정비, 전문인력 확보·양성, 교육 및 홍보 강화, 심리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설정하여 이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의사결정 기법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AHP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살펴본 결과 집중호우 및 침수로 인해 불안, 충격·분노·기억장애, 스트레스와 갈등의 심리적인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놀람과 자연현상에 민감해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재난 직후 나타남으로써 재난 초기의 심리지원이 중

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재난피해 현황(인적, 물적 피해) 및 피해자 요구사항 파악, 재난상황·가족안부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긴급한 필요시 심리지원 인력 조기투입(재난심리 정보제공)등 재난 피해자의 심리충격 치유를 위한 신속한 활동이 요구된다. 재난 이후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불안, 스트레스와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고, 이는 재난 이후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지원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2007년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심리지원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시범적으로 지원이 되었지만 광범위한 피해지역과 다수의 재난피해자들에게는 효과가 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재난심리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보면, 법적·제도적 정비(.386)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피해자 지원 및 실효 가능한 법률 정비 등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고 지원에 대한 구체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및 일반공무원·민간봉사자, 일반 국민, 재난피해자 등 재난 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교육 및 홍보 강화(.275), 재난심리 및 상담·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심리학과, 정신과, 간호학과 교수,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 요원, 심리상담 전문가(대학, 대학원 석·박사), 재난피해 경험자 등의 전문인력 확보·양성(.223), 마지막으로 재난심리센터 지정 및 운영, 재난심리전문가의 네트워크 강화, 전문인력관리,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계획 수립, 장기적인 연구 및 심리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는 심리지원센터 지정·운영(.116)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재난의 피해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민간 자원봉사자 등 재난 시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상시 교육,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의 일환으로 평상시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및 행동적 반응을 설명하는 교육, 홍보 책자 마련 및 배포 등의 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심리지원 분야가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의학, 심리학 측면에서는 다루어졌지만 여러 방면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고, 평가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직후부터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리적 상태와 심리지원 실태를 조사하였다. 향후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의 재난 직후부터 이후까지 심리적인 조사를 하여 지속적인 DB구축(심리상담 사례, 참여인력 등 포함)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계층을 세분화하고, 심리적 지원에 대한 평가지표를 심층적으로 연구보다 나은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지원체계의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영훈. (2008), 태풍 '나리'로 본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관리 분석 및 함의, 『정부학연구』 14(3).
- _____. (2008), 재난관리를 위한 로컬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태풍'나리'로 본 민간부문의 위기관리 관련조직 유형 분석, 『한국행정논집』, 20(4), pp.1085-1103.
- 김열수. (2004). 한국의 재난관리체제: 현상과 개선방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김용락·이현담. (2008), 『재난관리체제론』, 한국학술정보(주).
- 김찬형. (2005),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학회』 69(3).
- 류충. (2001), 『재난관리론』, 한성문화사.
- 박배진·김영민. (1999), AHP를 이용한 기계사고의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관한 연구, 『안전경영과학회지』, 1(1).
- 박성우. (2010), 재난과 심리,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정보센터 교육자료. 소방방재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복지부. (2006), 『재난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미친 장·단기적 영향 및 재난관리와 정신보건관리체계와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소방방재청. (2008),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_____. (2010), 2010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계획.
- 송윤석 외. (2009), 『재난관리론』, 동화기술.
- _____. (2002),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관리정책과 인위재난관리정책 비교연구: AHP기법을 이용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정보』, 36(2)(2002 여름), pp.165~185.
- _____. (2004), 재난관리시스템 개편과정 쟁점 분석 및 향후방향,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2(2), pp.147~169.
- 이재은 외. (2006),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 이재은. (2007),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체계 모형. 2007년 11월 서울 내러티브 연구소 월례 세미나 자료집.

- 전병호. (2007), 재해관리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제주의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사)제주지방자치학회 정책포럼:11-54
- 조근태 외. (2005).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 제주소방서. (2007), 「2007 태풍나리소방백서」.
- 제주특별자치도. (2008), 「2007 제주풍수해백서」.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2009), 「2008소방백서」.
- Drabek T.E. (1985), Managing the Emergency Respons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5(Special Issue).
- Galea, Sandro et 7 (1999). Trends of Probable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New York city after the September 11 Terrotist Attacks.
- Jacob G. A. (1995),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Plan for Disaster Mental health.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6(6): 543-549.
- Lee, K. J., S. J., Lee, S. W., Kim, S., Kim, Y. H., Won, J. S. (2006). Introduction to Psychiatric Nursing. Seoul;SooMoonsa Publishing.
- McLoughlin, D. (1985),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Vol. 45(Special Issue).
- Petak W. J. (1985), Emergency Management :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Vol. 45(Special Issue).

Abstract

An analysis of psychological support of disaster victim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terms of Typhoon 'Nari'

Kang, YoungHoon*

Although support for disaster damage was considered many times in material and economical aspects, disaster psychology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reatment for disaster victims has been neglected. As the material damage and psychological instability such as depression, schizophrenia, suicidal impulse and mental instability caused by disaster gets intensified and prolonged, it becomes a social problem beyond the personal and family problem.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comprehend the situation of the disaster victims such as psychological shock, severity of depression,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reatments, so that we could seek ways of aiding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Although all disaster management activities are importan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focusing on the psychology support policy for victim's psychological stability. We used the AHP method to analyze the order of priority and took a case of Dongmunshijang (Jeju traditional market) which was damaged the most by the Typhoon Nari.

As a result, the psychological state of disaster victims revealed severe psychological damages such as instability, shock, anger, defect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f memory, stress and conflicts caused by torrential rain and flooding. This furth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arly psychological support.

Even at this point where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isaster, the fact that instability, stress and conflicts are still unsolved indicates that long term support is indeed needed.

The most emphasized aspect among the disaster psychology support policy was found to be organized legal institution, built up education and promotion, cultivated professional manpower and run psychology support center. In this way, we can guarantee the safety of the citizens and set the comprehensive support policy to help them to return to their normal life. And to realize that, we should educate regularly all the possible people who can be brought in to disaster areas such as firemen and civil volunteers.

Key Words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Psychology,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Priorities, AHP

교신 : 강영훈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행정학과
(E-mail : younghoo@jejunu.ac.kr 전화 : 064-754-2933)

논문투고일 2011. 01. 27.

심사완료일 2011. 02. 13.

게재확정일 2011. 02. 16.

